

##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1. ③	2. ④	3. ④	4. ①	5. ⑤
6. ②	7. ④	8. ①	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④	23. ④	24. ①	25. ②
26. ②	27. ①	28. ②	29. ②	30. ③
31. ①	32. ④	33. ①	34. ②	35. ⑤
36. ⑤	37. ③	38. ⑤	39. ③	40. ③
41. ③	42. ④	43. ②	44. ②	45. ③
46. ⑤	47. ⑤	48. ①	49. ⑤	50. ③

###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려면 발사에 필요한 장비와 꽃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꽃불’이란 말이 좀 낯설죠? 불꽃놀이를 위해서 총이나 포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물체가 바로 꽃불입니다. 꽃불은 껍을 감싸고 있는 ‘옥피’, 불을 붙이는 ‘도화선’, 꽃불을 터뜨리기 위한 ‘할화약’, 빛을 내는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꽃불이 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불꽃놀이를 볼 때 아름답게 변하던 불꽃의 색깔, 기억하시나요?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속 성분을 층별로 다르게 나눠 넣은 별이 표면에서 내부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불꽃의 색깔을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성분에는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속 성분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향, 섬광, 점멸, 비행 효과 등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발표 내용 중에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별을 배치하는 순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넣는 순서를 언급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부분에서 ‘꽃불’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② 공중에서 꽃불이 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는 발표 내용이 있다. ④ 발표 내용 중간 이후 부분에,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 금속 성분을 층별로 다르게 나눠 넣은 별이 표면에서 내부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난다는 내용,

불꽃의 색깔을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성분에는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등이 있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⑤ 발표 내용 중 마지막 두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2.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편집반:** 안녕하세요? 교지 편집반 2학년 진달래입니다. 선배님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을 인터뷰해서 '우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교지에 글을 실으려 합니다. 먼저 김 선배님부터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 선배:**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 좋겠고, 졸업 후 자신이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면 정말 좋겠네요.

**편집반:** 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배:** 대학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선후배, 동기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해 현장 실습 경험을 쌓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집반:** 이 선배님은요?

**이 선배:** 자부심을 갖게 해 줄 대학이면 좋겠어요. 건물이나 시설은 조금 낡아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에 다닌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들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한 여러 분야의 선배들과 만나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잘 해 주면 좋겠어요.

## 2.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가고 싶은 대학'에 관한 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김 선배) •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
-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
  - 졸업 후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대학
- (박 선배) •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 교수님들로부터 인격적 감화를 받을 수 있고 선후배나 동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많은 대학
  -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해 현장 실습을 쌓도록 해 주는 대학
- (이 선배) •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대학,
- 미래를 위한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학
  -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해 주는 대학

이상의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을 종합해 보면, 세 학생은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대학’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3.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대화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예측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죠. 습관적으로 늦잠을 자는 아이에게 비난을 쏟아부리는 것 대신에,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지각하잖아. 그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겠지?”라고 논리적으로 말해 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 전달법’입니다. 이건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행동을 한 상대를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현재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혔을 때 “넌 왜 이렇게 정리도 제대로 못 하니?”라고 말하는 대신에 “네가 방을 어지럽히니까 엄마는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서 속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화 상황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동아리 발표 준비를 위해 휴일 아침 학교에서 모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남학생 : (가쁜 숨) 안녕, 애들아?  
여학생 : 야, 지금 몇 시냐? 지각한 게 벌써 세 번째야.  
남학생 : 너무 그러지 마.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가 바로 내 앞에서 떠났어.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막 뛰어왔단 말이야.  
여학생 : \_\_\_\_\_

자, 이 상황에서 여학생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강연 내용 중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보라는 강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강사가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와 ‘나 전달법’이다. 전자는 ‘예측되는 결과’, 즉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의 행동으로 화자 자신이 입게 될 피해와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 상태 등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방법이다. ④의 ‘이렇게 자꾸 지각하면 친구들한테 비난을 들어 너도 기분 상할 거야.’라는 내용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해당하고, ‘나도 바쁜데, 네가 늦으니까 연습도 못하고 기다려야 해서 좀 화가 나.’라는 내용은 ‘나 전달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뒤 문장에 ‘나 전달법’에 가까운 내용이 있지만, ‘조금 일찍 나왔어 야지.’는 비난성 발언이므로 두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첫 문장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가깝지만, 이어지는 문장 역시 비난성 발언이다. ③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⑤ 뒤 문장이 비난성 발언에 가깝다.

[4~5] 다음은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기부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학생:** 선생님, 외국의 경우, 큰돈을 번 기업인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부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회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글쎄요, 사회 지도층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걸까요? 저는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데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를 기업과 같은 단체나 사회 지도층이 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의 개인적인 기부가 적어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전체 기부액에서 개인의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낮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학생:** 정부에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 지도층의 기부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런 기부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남학생:**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부금 모금 단체를 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기부 형태 중에서 비정기적인 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여학생:** 저희같이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들은 기부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기부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 재능 등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죠?

#### 4. 사실적 사고(중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여학생의 발언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언급하고, 두 번째 발언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기

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세제 혜택, 기부 사례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들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⑤ 남학생의 첫 번째 발언 중에 ‘기부금 모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 ‘개인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이 있다. ④ 여학생은 마지막 발언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청소년의 기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발언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와 ‘어떤 조사’를 거론(첫 번째 발언)했고,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⑤**

#### [6-12] 쓰기, 어휘·어법

####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는 경쟁이 심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의 경우, 단순 암기 방법에서 남들과의 경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에 따라 공부를 하는 것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분야를 개척하는 내용이므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자료에서 연상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자료 (나)의 경우 피자를 자르는 아이가 욕심이 앞서서 많이 자르면 뒤에 고르는 아이가 큰 조각을 주울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다 손해를 보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피자를 자르는 아이와 고르는 아이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에서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⑤ 천적에 대한 경계를 무릅쓰고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에 관한 (다)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 7.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3에서 청소년이 친구와 상담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상담하는 친구의 태도가 잘못되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 4는 청소년 상담 기관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모와 친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에서 청소년의 고민 내용이 주로 공부와 진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4에서 청소년이 상담(상담 기관)을 통해 고민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는 부모와 대화할 때 겪는 어려움(잘못한 것까지 다시 말씀하신다,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 등) ③ 자료 1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료 4에서는 일상적인 고민

에 대한 청소년 상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자료 4를 통해 청소년 상담이 주로 ‘위기 청소년’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과 표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을 바라는 청소년의 마음을 드러낼 것. (2) 비유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3)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①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관심의 우산을 씌워 주세요’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비유의 경우, ‘소나기(위기 청소년 문제)’, ‘가랑비(일상적인 고민)’, ‘우산(상담)’이며, 대조적인 표현의 경우, 소나기와 가랑비에 관하여 대조적으로 진술한 부분이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상담을 실시하지 말고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하자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나기(위기 청소년 문제)’, ‘가랑비(일상적인 고민)’, ‘우산(상담)’ 등의 표현은 조건 (3)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미운 오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위기 청소년 문제가 아닌 일상적 고민에도 관심을 갖자)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했다. ③ 비유적인 표현은 쓰였으나 대조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았다. ④ ‘마음에 있는 빛을 지켜 가세요’라는 표현은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⑤ 표현의 대상이 부모님에 가까우므로 자료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9. 비판적 사고(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메모에서는 ‘학우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⑤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안을 제시하자고 하였는데 이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고, ‘훼손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정답] ⑤**

####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고전은 왜 읽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첫째 문단에서는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 문답의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르자면, 세 번째 문단을 첫째 문단 앞으로 옮겨야 한다. 마지막 문단으로 옮긴다면 글의 앞부분에서 답을 하고 글의 뒷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한 순서가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의 제목이 ‘홍부전’인데, 이 글은 홍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부전과 같은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글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주어진 글에서 ‘고전을 읽는 이유는 ~ 의미를 준다’로 되어 있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 때문이다’로 고치

는 것이 적절하다. ④ 고전에서 인류의 문제를 제기한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한 지적이다. ⑤ 고전의 개념 규정 없이 바로 고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오랜 세월을 두고 읽을 만한 좋은 책’은 고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는 적절한 표현이다.

### 11. 어휘·어법 (어휘의 의미 구별)

**정답해설** : ‘찢다’는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는 뜻이므로 도구를 쓰지 않을 때의 표현이며 ㉠에 해당한다. ‘빵다’는 ‘짓찝어서 가루로 만든다.’의 뜻이며, 절굿공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다지다’는 ‘고기,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든다.’ 뜻이며, 칼을 사용하여 잘게 만드는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썰다’는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의 뜻이며, 잘게 자르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③

### 12. 어휘·어법 (표준 발음의 사례 분석)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기초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이다. ㉠와 ㉡의 사례에서 겹받침 ‘ㄹㅂ’의 발음은 다음 이어지는 자음과 상관없이 각각 같게 나고 있다.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 [13-18] 시가복합

### (가) 김소월, ‘길’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목적지를 잃고 방랑하는 나그네의 비애를 자문자답 형식의 대화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글픈 정한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의 근원적 애수를 그린 것일 수도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를 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유랑하는 삶의 비애

### (나) 백석, ‘적막강산’

**작품해설** : 이 시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의 기본적인 문장을 유지하면서도 각 연에서 이 문장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 문장에 다른 형태가 부연되어 시적 상황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화자의 상황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화자는 적막강산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는데, 화자의 답답함은 시대적 현실을 생각한다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 느끼는 답답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적막강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

(다) 이신의, '단가 육장'

작품해설 : 유배지에서서의 고통스런 생활을 담아낸 6수의 연시조로 광해군 때 작가가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 회령과 흥양으로 유배되어 5년간의 유배 생활을 할 때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마음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떠도는 시적화자의 신세는 '까마귀'에 감정이입을 하여 표현하였고,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는 '기러기'와 대조하여 표현하였다. (나)에서 제시된 공간은 '산'과 '들'이며 이곳은 온갖 새들의 소리로 들썩이고 있지만, 화자는 이와 대조되어 적막강산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다)의 <2장>에서 시적화자의 처지는 '술'에 빗대어 드러나고 있고, <4장>에서 '제비'는 화자의 시름을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하였으며, <5장>에서 '명월'은 화자의 반가운 옛 벗으로, <6장>의 매화는 화자를 대변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각의 대립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 작품에는 이러한 시각의 대립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 것(부근이 그다지도 날뻐시고)도 (다)밖에 없다. ③ (나)의 산과 들에서 온갖 새들이 들썩이는 소리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④ (다)에서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⑤ 명암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것의 대비가 나타난 것은 (가)와 (나)뿐이다.

14.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떠돌이 나그네의 신세이기에 어디론가 가야 하지만, 오라는 곳이 없어 갈 바를 모른다. 비록 고향이 있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고향은 갈 수 없는 곳이기에 화자의 외로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자와 달리 공중의 기러기는 가고 싶은 곳을 잘 가고 있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15. 추론적 사고(핵심 시어에 대한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산'과 '들'은 모두 새들의 온갖 소리로 들썩이는 공간이기에 서로 상반되기보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산'과 '들'은 오히려 '적막강산'에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야생 배추가 여물어 가는 때이기에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산’과 ‘별’의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적막강산’에 있다고 하여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

### 16.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비교 분석)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나)의 시에는 서술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연에서 알 수 있듯이 적막강산에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길’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기에 소재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적막강산’은 사실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주 꼭산’은 화자의 고향이라고 했다. ‘정주 동림’은 ‘구십여 리 하룻길’이라 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실제 이 길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갈린 길’은 갈림길이기에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하룻길’은 길을 가는 데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길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17.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귀양살이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야 한다.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풀려나야 할 것이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임금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귀양지에서 쓴 작품 속에 임금(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임금의 사랑이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충제충신을 강조하기에 충의 마음은 엿볼 수 있지만, 임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③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며 귀양살이하는 자신의 신세에 한숨을 쉬고 있다. ④ 화자는 들보 위의 제비를 보며 시름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명월을 보며 옛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가워하고 있다.

### 18. 추론적 사고(화자의 대상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별은 소리에 들쭉이는 반면 화자는 홀로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3장>에서 귀양살이하는 화자는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고 한숨에 겨워하고 있기에 이 역시 화자와 대상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장>에서 ‘효제충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이다. ② <2장>에서 ‘술’은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5장>에서 화자는 ‘명월’을

벗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6장>에서 ‘매화’는 화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 [19-20] 과학, ‘시간의 물리학적 성격 변화’

**지문해설** : 뉴턴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절대 불변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물체의 운동에서 시간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개념에서 시간은 절대성을 잃게 되었다. 물체의 속도에 따라 시간의 팽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에서이기는 하나,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시간을 물체의 운동을 계산할 때 공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상대적 요소로 변화시켰다.

**[주제]** 시간의 상대적 성격을 파악한 아인슈타인

### 1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속 우주선’을 탈 경우 일상에 비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팽창되어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시간에 따른 사람의 노화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라 하더라도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그 크기는 미미하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하여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시간 팽창의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③, ④ 물체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 시간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⑤ 빛이 이동하여 지구의 관측자에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므로 시간 팽창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20.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으로 뉴턴의 시간 개념을 비판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이 경우 비판을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뉴턴의 시간 개념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따라 운동 속도가 무한히 크면 그렇지 않을 때와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으므로 시간을 절대적이라고 한 뉴턴을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대 시간 개념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위배된다. ③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지, 시간을 인위적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다. ④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입장이다. ⑤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팽창에 대해서 언급했지, 시간의 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1-2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김원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탈각(脫却) 설화뿐만 아니라 용궁 설화, 연적 설화, 재생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그 운명이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주제]** 김원의 환골탈태와 고난 극복

##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김원은 허물을 벗은 다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에 쌓여 있었던 십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 승상은 흥물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 선녀의 말과 선녀가 출산을 도와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흥물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말하기는 하고 있지 않다. ② 부인은 흥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웃으며 밥을 더 주고 있다. 이때 흥물이 밥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을 괴히 여기기는 했으나 근심하지는 않았다. ③ 노복이 흥물을 대한 부인의 태도를 비웃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 승상 부부는 흥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仙童)이 된 것에 대해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알고 싶어 김원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 22. 추론적 사고(자료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김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내실(內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의혹을 갖던 차에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김 승상에게 월영각에 흥물이 없어지고 선동(仙童)이 앉아서 김 승상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복은 흥물이 선동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복은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것’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흥물로 적강(謫降)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김원이 적강(謫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골육(骨肉)’은 ‘혈육(血肉)’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 ‘원(圓)’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불초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김원이 부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23.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김원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 ‘성장’에는 부모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 과정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변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선관’이다. 따라서 ㉠, ㉡의 서사 요소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당하지 않고 죄에 대한 별로 적당하였다. ②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 ㉡는 김원이 적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계의 사건이 천상계의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나타낸다. ③ 부모가 ㉠, ㉡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 ㉡가 괴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를 괴이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괴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지상계의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 ㉡가 괴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허물’을 통해 ㉡를 확인받고 있다. 이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김원이 지상계에 내려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확인을 지상계의 인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승상 부부가 말한 것은 십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선동(仙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그 의미가 통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임.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룸.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룸.

**[25-27] 언어·생활, ‘독서 방식의 역사’**

**지문해설** : 이 글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다양한 독서 방식들의 등장 배경과 그로 인한 읽기 방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대에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다가 12세기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묵독이 발명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끊어 읽는 방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18세기 중반, 금속 활자 및 인쇄술의 보급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고 독자층도 두터워졌다. 이로써 집중형 독서에서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행해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색형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독자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주제] 다양한 독서 방식들의 등장 배경과 그로 인한 읽기 방법의 변화

## 25.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고대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있어 독자는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보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따라서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12세기 유럽 수도원을 중심으로 묵독이 등장하면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고, 이 시기에 책자형 책의 등장으로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 재독하기가 편리해져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이 가능해졌다. 18세기 중반 인쇄술의 발달로 다독이 등장하였고,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발달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자 검색형 독서(㉢)로 불리는 독서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 때 독자들은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정답] ㉡

## 26. 추론적 사고(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두루마리 책을 대체하여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책의 여백에 주석을 달 수 있고, 앞부분을 재독하기도 쉬워져 묵독의 확산을 도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만이 독서 대상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정독해야 하는 필독서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 음독의 독서 방식 시대에는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들이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묵독의 시대가 되면서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등장할 수 있었다. ㉣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 이어 쓰는 표기법에 비해 문장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다. ㉤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쉬워졌다. 독자는 어디까지나 주체적 사용자로, 원하는 대로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고를 수 있고 텍스트를 조합할 수도 있는 검색형 독서 방식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과 같이 목록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록 시대처럼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 보다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해졌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원전 텍스트라는 개념은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③ 독자의 필요에 의해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다른 텍스트에 추가할 때, 원 저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표절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④ 종이책으로만 존재했던 자료들이 전자 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는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 처리적 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28-31] 사회,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

**지문해설** : 환율의 상승이 경상 수지를 개선한다는 통념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고 있다. 일단 환율이 오를 때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J커브 현상’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반면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의 상승 후에도 경상 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도 소개함으로써 환율의 상승이 단순히 경상 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만큼 환율 정책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 파악을 통해 신중한 환율 정책의 실시를 강조함

### **28.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하게 되기도 한다. 고환율 정책은 보통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일 때 구사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단순히 ‘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고환율 정책을 쓴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본문에 제시된 바처럼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대개 고환율 정책을 쓴다는 소개는 있었지만 ②처럼 이를 필연성이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③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④ 이 글은 전체적인 체계가 국내 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환율이 상승하면 대개 경상 수지를 개선하게 되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 29. 추론적 사고(그래프 자료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J커브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내용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단기적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즉 ㉔부분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로는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와 외국 소비자들의 지체된 반응을 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㉑의 설명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㉒에서 말하는 ㉓부분도 그래프가 우상향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경상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㉒. 수출 기업이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㉔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치지는 구간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래로 치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즉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기대지 않고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㉒. 환율은 ㉕의 앞에서도 이미 상승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㉕가 굳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㉕는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를 벗어나게 되는 기준점일 뿐이다.

### 30.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환율이 오르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생각이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추리하는 것인데, ㉑의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곧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환율 상승일 때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후에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국내 기업이 환율의 안정성을 살펴본 후 가격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은 아니다. ⑤ 세 번째 단락

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경상 수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어휘어법(관용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수출 기업은 환율의 상승만을 믿고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품의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즉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속담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가 가장 적절하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 그 입안으로 홍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②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 상황을 헤쳐 나오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③ 가난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④ 재주가 많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⑤ 한 가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욕심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 [32-34] 희곡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작품해설** : 승천이 좌절된 구렁이의 전설과 삼국사기에 실린 온달 설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창작 희곡으로, 공주의 주체적 의지와 온달의 헌신적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와 달리 공주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출가하면서 우연히 온달과 만나 결혼하고,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작처럼 온달이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정적인 고구려 왕자의 사주를 받은 부하들의 음모에 의하여 암살되는 것으로 각색되어 있다. 온달의 죽음 후 공주도 온달의 옛집에서 온달의 어머니(‘온모’)를 모시고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주제]** 온달과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 32.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심리 추리)

**정답해설** : ‘장교’는 [A]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은 ‘왕명을 받들고’ 공주를 잡으러 온 사람임을 밝힌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주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언에서 ‘반역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장군들은 공주가 ‘(부장의) 투구를 벗으라고’ 한 말을 근거로 혹시 공주가 무슨 기미를 알았는지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③ 부장은 ‘과연 누구(자신과 공주 가운데서)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지’ 보자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대로 공주를 압박하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밑줄 친 ‘설화가 지나는 비현실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글 ‘앞부분의 줄거리’에도 제시되었듯이 이 글의 비현실적인 요소는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내용상 연관되는 것이 ①이다. [정답] ①

34. 추론적 사고(연출 의도 추리)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시각 자료를 이해해야 하고 <보기> 아래쪽에 제시된 조건 등을 고루 염두에 두고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보기> 아래쪽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고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장교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했지만 (가)에서 장교의 위치는 2번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는 조건과 어긋난다. 장교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그는 조건에 따라 (가)의 1번 지역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사’와 ‘공주’의 거리가 (가)가 (나)에 비해 가깝다. ④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서는 장교에 의해 온모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5-38] 현대소설 - 김원일, ‘다시 눕는 풀’

작품해설 :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는 뒤로 한 채 산업사회를 향해 무한 질주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상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김 여사의 얼굴과 맞닿아 있다. 주인공인 시우와 시우네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자처한 시우의 선택은 눈물겹게 감동적이다. 돈에 팔려가는 시우를 ‘심청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감옥에서 웃고 있는 시우를 ‘포춧집에 팔려 나온 시골 처녀’에 비유함으로써 작가는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일면을 그리고자 하였다.

[주제] 산업 사회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자화상

35.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사건의 서술은 시우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략) 이전의 내용은 이 선생과 젊은 사장의 대화이지만, 화제는 시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또한 (중략) 이후의 내용은 시우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느냐에 서술의 초점이 있다. [정답] ⑤

36. 비판적 사고(인물의 특성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종우는 시우를 면회 와서 보상금으로 받은 180만원에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아달라고 하며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부사장은 겉으로는 시우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사장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체면, 명예를 최대한 지켜내면서 의도대로 일을 꾸미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만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시우는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가 형이 확정되자 함정에 빠진 듯했고, 억울해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형이 면회를 와서 보상금으로 받은 180만원으로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감옥 생활을 참아내기로 마음먹는다. ③ 죄수들은 추위에 영겨 있으면서 시우에게 오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우의 우는 듯 한 웃음에 역시 한마디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첫 장면에서 사무장이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부사장, 사모님을 위해 돈으로 시우를 매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7.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시우는 가족들을 위해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을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기에 ‘감옥’을 ‘집 안방’(㉠)으로 표현하였으며, 죄수들을 보면서도 ‘다정한’(㉡) 얼굴이라 생각한다. 또한 눈이 오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행복한 생활을 생각하며 ‘산타클로스 모자’(㉢)를 떠올리고, 동생이 입을 ‘교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이 처한 감옥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갖 죄를 지은 죄수들의 죄명을 시각화한 ‘뿔말’은 시우의 마음가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답] ③**

### 38.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평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평을 작품의 구체적 내용에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작품에서 가진 자(부사장, 사모님)와 못 가진 자(시우네 가족)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대립 구도가 공간적 대립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즉,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는 공간적 대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면회소는 시우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고, 신흥 주택 단지는 시우의 희생으로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공간이기에 대립적이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우가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웃은 것과 이에 대해 다른 죄수가 말한 것을 통해 이 웃음은 시우의 복잡한 내면,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한 작가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사건 조작 모티프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 작품에서는 사모님의 죄를 가난한 시우가 대가를 받고 대신 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결국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사모님은 시우에게 빚을 졌다면 시우가 나오면 월급을 올려줄 것이라 했지만, <보기>와 같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면 결국 돈으로 사람을 거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9-43] 예술, '음악 이론과 전통'**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한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이 되고 있는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수학의 관점에서 이해한 학자로, 하프를 직접 연주하고 그 소리를 분석하여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의 조화를 찾아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을 밝혀냈다. 피타고라스가 논리 중심의 음악관을 폄하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리적 비율보다 '감각적 지각'을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여 음악주의자로 불리는 후대 이론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대립적 성향의 음악 이론은 비단 이론뿐 아니라 오늘날 창작, 연주, 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주제]**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한 고대 그리스의 두 음악 이론

**39. 추론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다)는 음악에서 논리를 중시한 피타고라스와 경험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즉,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음악의 미적 체험을 이해하려 했던 피타고라스와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려 했던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비유적 진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② 피타고라스 음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용어의 개념 정의는 없다. ④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 단락의 내용을 이어받아 서술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는 보이티우스의 음악 분류로, 모두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차원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즉, 대우주의 수적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문다나(㉠)', 우주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휴마나(㉡)',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의 세 단계이다. ㉢은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의 조화이므로 악기가 내는 물리적인 소리의 조화 상태를 이루는 ㉠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수(數)적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에서 하프를 직접 연주하는 행위는 ㉢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④ ㉣의 간단한 정수비는 음향학의 기반인 음정이 될 수 있다. ⑤ ㉤은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다.

#### 41. 추론적 사고(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음악주의자’는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음악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③의 사례에서와 같이 ‘직접 음반을 듣’는 경험적 방법을 중시여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에서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②에서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 ④에서 음악의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것, ⑤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 ‘감각적 지각’이 아닌 ‘수적 비율’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음악주의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

####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글 (나)와 <보기>의 자료를 통해 옥타브 [도-도']의 음향학적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옥타브 [도-도']는, [도-파]와 [파-솔], [솔-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현 길이의 비가 12 : 8이면 [도-솔]에 해당되고, 이는 5도이다. 따라서 현의 길이가 12: 8인 두 현을 켜면 당연히 4도가 아니라 5도가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모두 5도 이므로 같다. ② 옥타브 [도-도']는 5도인 [도-솔]과 4도인 [솔-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옥타브 [도-도']는 두 개의 4도([도-파], [솔-도'])와 한 개의 온음([파-솔])으로 구성된다. ⑤ 현 길이의 비 9 : 8은 [파-솔]로 온음에 해당한다.

#### 43. 어휘·어법(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정답해설 : ㉠의 ‘내재한’의 ‘내재(內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는 의미이며, ㉡의 ‘배어 있는’의 ‘배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로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는 ‘들어 있다’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② 융합(融合) :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 ③ 조합(組合) :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④ 규합(糾合) : 일을 꾸미려고 사람을 모음. ⑤ 결합(結合) :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 [44-47] 인문,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초반부에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내용과 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공리주의를 포괄할 수 있는 특징이 ‘공평주의’임을 강조한다. 그만큼

전통적 공리주의는 이익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공리주의에 대해 반공리주의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시각을 드러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다보니 정의롭지 못한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과 관련하여, 정의의 개념을 포함한 공리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한다.

[주제]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차이

#### 44.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이 문제는 <보기>에서 ‘갑’의 예를 들어 ‘친구를 간호하는 일’과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를 구한 일’을 비교하며 공리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일단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갑’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어진 행복의 양이 최대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갑’이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 행복해진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갑’의 행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행동한 일로 인해 얻어진 행복이 최대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여주는 쪽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양을 최대로 산출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③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람은 따라 행복의 무게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공평주의라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이므로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⑤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게 될 거라는 판단 아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 45. 비판적 사고(반대 관점의 이해)

**정답해설** :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에 제시된 사례에서 민우는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집단 간의 충돌을 막게 될 것이다. 즉 한 사람만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행복의 총합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반공리주의자들은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정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의 총합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 반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의 불확실성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고, 반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정의의 개념 소홀을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에는 정의가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없으므로 반공리주의자들이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에게 지닐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취할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또 반공리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예상하리라는 근거도 없다.

#### 46. 추론적 사고(두 내용의 비교)

**정답해설 :** <보기>의 의무론자는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인 셈이다. 반면, A에서 언급된 규칙 공리주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사회’라는 결론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에 이르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의 특성이다. 즉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를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개념을 포괄해야 한다고 입장을 지니고 있지 모든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의무론자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규칙 공리주의자만이 결과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④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가 아니라 정의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7.어휘어법(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 쓰인 ‘따르다’는 앞에 언급한 내용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즉 ‘관례나 법규 따위를 좇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한 것은 ‘원칙에 따르다’라는 형태로 쓰인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복종하다’, ‘준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남을 좋아하여 붙좃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본떠서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남의 뒤를 좇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48-50] 기술,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

**지문해설 :**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를 인지할 수 있으나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불가능하다. 이 글은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의 작동 원리와 평가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센서는 가스가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해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 등이 사용된다.  
**[주제]**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의 작동 원리 및 평가 요소

**4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산화 가스, 환원가스와 전자를 주거나 받아 흡착함으로써 저항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간의 후각은 미세한 가스 농도를 감지하지 못하다. ③ 회복 시간이 짧아야 센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산화물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한다.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가 탈착되기 전과 후에 변화한 저항값이 아니라 가스가 흡착되어 변화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4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이와 대응되는 내용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⑤이다. ⑤의 사례에서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한 것’에 대응되며, ‘항상 분당 128~130회’였다는 것은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에 대응된다. **[정답] ⑤**

**50.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한 핵심 정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t_1$ 을 지난 시점부터 A 물질의 저항값과 B 물질의 저항값이  $R_s$ 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응답 감도 값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며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보기> 그래프의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가스이다. ② 응답 감도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R_s$ 와  $R_{air}$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응답 감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④ 그래프에서  $t_1$  전 단계를 보면 A, B의 저항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t_1$ 시점을 지나 저항값이 일정해지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A물질의 저항값이 B물질의 저항값보다 큰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